

양오봉 제19대 전북대 총장 취임식

“기본에 충실한 대학 만들 터”

“기본에 충실한 대학으로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JNU Pride’를 만들겠습니다.”

양오봉 제19대 전북대학교 총장 취임식이 22일 진수당 기인홀에서 열렸다

이날 취임식에는 전임 총장단과 정영택 총동창회장, 김관영 도지사, 서거석 교육감, 정운천 국회의원,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우범기 전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경북대 총장), 이진숙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장(충남대 총장), 박진배 전북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장(전주대 총장) 등 전국 대학 총장들과, 사범 하사단 주한모로코왕국대사를 비롯한 해외 대학 총장 및 대학 유관 기관장 언론사 대표, 대학 보직자를 비롯한 교수 직원 학생 등 300여 명이 함께 양오봉 총장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식전 공연으로 시작된 취임식에서는 주요 보직자 소개와 함께 이동현 교무처장이 양오봉 총장의 주요 약력을 소개했다. 이어 외부인사와 교직원 학생 등이 직접 출연한 영상 축하메시지 상영과 교수, 직원, 학생 대표의 꽃다발 전달 등으로 화기에 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특히 이날 양오봉 총장은 직접 프리젠티어로 나서 전북대학교 비전 및 청사진을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양오봉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전북대학교가 세계 인재들이 모여드는 글로벌 허브로서 글로벌 Top 100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학생 중심 대학, 플래그십(Flagship) 대학, 지역사회와 봉사하는 대학을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전북대를 교육과 연구 행정의 기반을 다지는 ‘기본에 충실한 대학’을 만들고자 한다”면서 “교육 분야에서는 학생 중심의 전북대를



제19대 전북대학교 총장 취임식이 22일 진수당 기인홀에서 열린 가운데, 양오봉 총장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만들기 위해 학부생과 유학생 그리고 대학원생 등 이 세 축을 기본으로 교육과 연구 취업 지원을 균형 있게 강화하고, 연구 분야에선 임기 중 최소 5개 이상의 학문 분야에서 세계 100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 총장은 기업과 기관 더

“글로벌 Top 100 대학 목표로 힘차게 내딛어

플래그십 대학 실현 지역사회와도 협력 많은 성원 보내달라”

나아가 지역사회와 국가에 봉사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한 ‘플래그십(Flagship) 대학’으로 설정해 실현해 나간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의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것이 대학의 본질이라 생각해 왔는데, 이제부터 전북대는 지역사회와

국가에 봉사하기 위해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겠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처럼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지역사회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플래그십 대학으로 나아가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양 총장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하며 “지자체와 공공기관, 그리고 산업체와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우리 지역의 번창을 이끌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를 위해 캠퍼스 밖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세일즈 총장이 되겠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북대 가족 여러분의 응원과 동참으로 미래를 이끄는 글로벌 Top 100 대학이라는 목표를 갖고 첫발을 힘차게 내딛었다”며 “많은 응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폐암 산재 대책 마련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전북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 교육청에 적절한 인력 충원·환기시설 개선 등 촉구

도교육청, “공동조리 3개교 이상 등 추가 배치 가능 폐암 의심자 대상 추가검진 실시·검진비 지원”

전북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는 22일 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감은 폐암 산재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학교급식’ 산업재해와 폐암으로 고통받고 시름시름 앓고 있다’며 ‘학교급식 현장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낮은 처우 속에 함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규임사자도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1/3이 퇴사하는 실정”이라며 “무상급식은 근간이 무너질 위험에 처해있다”고 하소연했다.

교육부가 최근 학교급식 종사자 폐CT 검진 최종 집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대책으로 △환기시설 예산지원 △시도교육청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기준 보완 △조리방법 및 식단개선 △급식실 현대화 △보조구 및 안전교육 △급식 노동자 폐암 건강검진 후속 조치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은 “교육부의 대책은 미흡하다”고 했다.

그 이유로 환기시설 개선 계획과, 근무조건 개선 등을 들었다.

먼저 시도별 조리실무사 1명이 맞는 인원수인 배치기준을 낮추고 적절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시도별 배치기준 완화는 노동조합이 만들어낸 이래로 꾸준히 요구해 온 사항이다. 현재 학교급식 노동자의 1인당 배치기준은 공공기관 급식시설 종사자들과 대비해서도 평균 2~3배 가량 높다.

전북교육공무직본부가 건강한 노동세상, 인천대 노동과학연구소와 함께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급식실 노동자는 체력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어 건강에 무리없이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원보다 30%의 인력이 더 보충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환기시설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은성 기자

이들은 “폐암 산재가 발생한 지 2년 이 됐고, 고용노동부 환기시설 가이드라인이 나온 지도 1년 6개월이 지났다”면서 “지하/반지하 급식실에 대한 개선은 당장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전북교육공무직본부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공동조리 3개교 이상, 특수학교, 비조리 단설유치원에 조리실무사 1명 추가 배치 가능하다고 했다. 더불어 2·3식 학교에는 2인 이상 추가배치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수익자 부담이다.

그러면서 현재 전북교육청은 17개 시도 중 초등은 7순위, 중등은 2순위 수준이라고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급식실의 자동화 조리기구 도입 및 전처리 식재료·반조리식품의 사용 빈도가 높아져 급식현장에서의 노동강도가 완하 추세”라며, 학교의 적정규모를 위한 소규모 학교 통합 정책 방향에 따라 조리실무사의 잔여 인력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022학년도 초등학교 학생수는 2022학년도 대비 28.2% 감소한다는 것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생수 감소 추이와 소규모학교 통합 추진 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교육청이 밝힌 도내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결과 이상 소견으로 양성 결절 631명, 경계선결절 40명, 폐결절 7명, 폐암 11명이며, 현재 4명은 검진 진행 중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폐암 의심자 대상 추가검진 실시 및 검진비 지원에 대해 안내했다.

정밀검진 완료자 8명에 대해 검진비 380여 만원을 지원했다. 또 오는 10월까지 양성 결절, 경계선 결절 등 이상 소견자에 대해서도 저선량 폐CT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산업안전보건 업무 기본방향 설명회

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실질적 의무이행에 중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3년 산업안전보건 업무 기본방향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2일 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 사이언스홀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도교육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자, 시설·용역 계약 업무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3월 조직개편편이 반영된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체적 역할 수행과 절차를 안내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도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 업무 기본방향을 한권의 책자로 발간, 업무담당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책자에는 △산업재해 예방 △중대산업재해 예방 △도급·용역·위탁 등 부유형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 △현업업무종사자 건강관리 운영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운영 등이 수록됐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 소속기관 및 학교에서 자체 세부 계획을 수립해 업무 추진시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예시안도 첨부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른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실질적으로 실행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노경숙 학교안전과장은 “학생과 교

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업무담당자들이 먼저 안전의 기본원칙을 숙지하고,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원광대 중앙도서관 ‘북 페스티벌’ 운영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 중앙도서관이 ‘북 페스티벌’을 통해 재학생을 비롯한 구성원의 독서 역량 향상 및 학습활동 지원에 나섰다.

2023학년도 1학기 개강에 맞춰 시작해 30일까지 이어지는 북 페스티벌은 행사 기간 내 도서관에서 5권 이상 도서를 대출한 구성원 중 선착순 500명에게 인터 넷 도서 할인쿠폰이 제공된다.

“독서에 관심을 갖는 좋은 기회가 됐고, 북 페스티벌 참여자들은 ‘도서 대출과 더불어 이벤트 등을 통해 도서관과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어 좋았다’며 구성원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했다.

행사를 주관하는 중앙도서관장 이상호(기계공학과) 교수는 “한 달 동안 이어지는 북 페스티벌 기간에 많은 구성원이 원하는 책들을 많이 보고, 대출도 많이 해 책을 꾸준히 읽는 습관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약산=이재춘 기자

고교 2~3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실시

도내 101곳 3만8000여명 응시

23일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치러지는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도내 101개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이번 응시자는 고2 학생 1만5,499명, 고3 학생 1만5,298명 등 총 3만8000여명이다. 다만, 전교조(전북지부)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전북 지역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치르지 않는다.

이날 시험은 1교시 국어영역, 2교시 수학영역, 3교시 영어영역, 4교시 한

국사영역, 4교시 탐구영역(사회, 과학) 순으로 진행되며, 4교시 직업탐구 영역과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실시하지 않는다. 시험시간은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4시 37분까지다.

한편 개인별 평가 결과는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 2주간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유출에 따른 성적자료 보안 강화 대책으로, 성적 출력기간이 기존 4주에서 2주로 단축된 것이다. 출력 기간 이후에는 자료 삭제로 추가 출력은 불가능하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은 시험 당일 불가피하게 등교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문제지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 진로진학센터(<https://www.je.go.kr/jno>)에서 시험 당일 문제지를 내려 받을 수 있으며, 해당 학생에 대한 성적차리는 제공하지 않는다.

중등교육과 유호선 과장은 “이번 평가는 올해 실시하는 첫 전국단위 시험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능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한 후 새로운 학습전략을 수립하는 중요한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사업 설명회

도내 특수교육 교원 등 참석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2일 전주치명자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3년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내 특수교육 교원 및 교육전문직, 통합학급 담임교사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명회에서는 발달장애학생의 정서·행동지원을 위한 장애학생 행동중재를 주제로 지난해 지원사업 설명회 및 특수학교·특수학급 운영사례 발표, 2023학년도 진행 사업을 안내했다.

장애학생 행동중재란 학생이 보이는 도전적 행동의 원인과 특성을 분석하고, 체계적인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을 제공해 학교생활 및 지역사회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말한다.

2023년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사업은 학교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교체 구축을 위해 △행동중재 지원교

사 직무연수 △특수학교 행동중재 지원 △행동중재 거점센터 운영 등을 추진한다.

특히 행동중재 거점센터에서는 집중적인 중재가 필요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선정해 개별 학생지원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수교사의 교육 학습 공동체를 지원한다.

유초등특수교육과 임대섭 과장은 “행동중재에 대한 중요성은 알지만 막연한 두려움으로 주저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서 “우리 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행동중재 지원 사업을 적극 안내해 현장의 교사들을 지원하고, 나아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장애학생의 삶의 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 29일 ‘미니 진로박람회’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는 오는 29일 문화관 일원에서 2023년 미니 진로박람회 ‘꿈을 찾아, 봄을 개척하다’고 밝혔다.

이번 진로박람회는 우석대 대학일자리본부·LINC 3.0 사업단·진로취업지원센터가 공동 주관하고, 전북일자리센터·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KT&G 상상유니브 등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재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과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미래지향적 진로 설계 및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행사로는 △진로타로 및 MBTI 검사 △진로·취업 상담 및 컨설팅 △진로 퀴즈 쇼 △청년고용정책 안내 △퍼스널 컬러 진단 등 학생들의 진로 설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부대행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학교 일본어문화학과 홈페이지 메인 화면. (사진=전주대학교 제공)

전주대, 일본 자매대학에

교환학생 4명 파견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일본어문화학과 교환학생 4명을 일본 자매 대학인 삿포로대학(호카이도), 가나가와대학(요코하마)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부터 자매 대학의 수업료 면제와 학기당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자매대학에서 수학하는 동안 이수한 학점은 본교 학점으로 1년 최대 32학점, 1학기 최대 16학점 인정된다.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일본의 문화와 교육체제를 직접 체험하고, 일본어를 더욱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교환학생 생활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더욱 키우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해 인생의 소중한 경험을 쌓을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일본어문화학과 편용우 학과장은 “이번 교환학생 파견을 통해 지적·학술적 교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주대 일본어문화학과는 학생들의 국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